



하나은행 과 함께하는

함신익 오케스트라 · 심포니 송 2023 마스터즈 시리즈 VII



심포니 송 창단 9주년 기념 콘서트



2023 BRAHMS FESTIVAL 2

함신익의 브람스



지휘 함신익
Shinik Hahm, Conductor

Brahms
Symphony No. 3 in F Major
브람스: 교향곡 제3번

Brahms
Symphony No. 1 in c minor
브람스: 교향곡 제1번

2023. 9. 9. Sat. 8:00pm 롯데콘서트홀 | LOTTE CONCERT HALL

THANK YOU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 사 장 문형주
부 이 사 장 안정근
이 사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한수향
감 사 김일규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구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2022 - 2023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 마에스트로 Circle 노루그룹 하나은행
- 마 스텍 Circle (주)EG
- 말 러 Circle (유)세봉 (주)에프에스티 (주)티에스이 한영재
- 브 램 스 Circle (주)디에스케이 (주)골프존
- 브 루 크 너 Circle 김석수 성시열 신승일 어스빌리지
- 슈 베 르 트 Circle 김창석 (주)다진 (주)면사랑 안정근 윤종웅 영앤진세무법인 (주)오로스테크놀로지 (주)세아제강 전동규 (주)제이씨케미칼 (주)풍산 황인혜
- 베 토 벤 Circle (주)동호 심 현 이경혜 (주)이솔 엔피코리아 윤재원 장원기 최영애 한태준 홍종관
- 쇼 팅 Circle 김윤자 문형주 송백규 주재식 제은경 최승식 한수향 황미영 (주)KNW
- 모 차 르 트 Circle 권상준 김일규 (주)내자인 두리엔 서석호 법무법인산경 (주)아큐스 양서윤 양세이 이영숙 이성재 이정화 이종민 유기숙 원장희 윤석애 신영만 전흥구 정미라 한정숙 (주)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 현재란
- 하 이 든 Circle 고윤영 권영규 권영성 권용관 김병국 김성렬 김승택 김영덕 김영원 김원호 김종혁 김지강 박민렬 박민선 박태곤 방효성 백희정 봉 욱 서동수 성민호 송근용 신동영 이근혁 이동근 이미영 이연수 이영철 이일형 이희우내과 임경철 장윤정 정명훈 조백일 조상식 조용섭 조한구 최금숙 최용근 한문성 허길자 최성원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

출발

지휘자 함신익은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미국의 다양한 오케스트라에서 음악감독 경력을 쌓아왔다. 또한 오랜 전통을 지닌 유럽과 남미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다짐한다. 이후,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경험을 통해 후세를 위한 새로운 오케스트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오랜 준비를 거쳐 2014년 8월,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만 <함신익과 심포니 S.O.N.G>을 창단한다. 함신익이 직접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간다는 신념과 후원자들의 열정이 만들어 낸 작품이다.

목표

-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고귀한 메시지를 전한다.
-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가 되고자 한다.

음악적 방향

-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5년까지 머물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거듭나게 한다.
-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해 최상의 연주를 추구한다.
- * 해외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로 성장한다.

성과

- * 효율적인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함신익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
Shinik Hahm & Symphony S.O.N.G

T.(02)549-0046/0947 F.(02)549-004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36, EG빌딩 B1
www.symphonysong.com

심포니 S.O.N.G
YOUTUBE





ARTISTIC DIRECTOR
SHINIK HAHM

함신익,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함신익의 인생여정은 평탄한 길보다는 험준을 오르내리는 등산가 또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탐험가와 흡사하다. 소년시절, 서민들의 애환이 가득한 삼양동 달동네의 개척교회에서 풍금으로 익힌 그의 음악감성은 정규적인 피아노를 배우며 성장에 속도를 더하게 된다. 그의 초·중·고 학생시절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보고 배우고 자라며 축구와 음악과 자연에 빠지게 된다. 그가 대다수 연주자들과 다른 특이한 성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때부터 예술을 접하는 태도와 시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은 오늘의 함신익을 형성하는데 소금같은 역할을 한다. 함신익의 보석같은 소년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가며 생성된 사명의식의 발로가 된다.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함신익은 미국으로 간다.

라이스대학과 이스트만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운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된다.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고, 철학 그리고 지휘 경험을 극대화시키며 프로지휘자로서 뺨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한다. 심지어 함신익은 아스펜의 여름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다.

20대에서 30대 초반 함신익은 미국에서 전문적인 학업을 부지런하게 한다.

그 후 세계지휘콩쿨에 입상하는 과정을 거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한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에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서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서 성장한다. 또한, 37세부터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서 23년간 재직한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이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을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지휘자 함신익은 대전시립교향악단(2001-2006) 과 KBS교향악단(2010-2012)의 예술감독 또는 음악감독으로서 한국오케스트라의 중흥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 곳곳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그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다. 그가 활발하게 연주한 콘서트홀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뉴욕 카네기홀, 링컨센터, UN본부,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보스턴 심포니홀, 필라델피아 김멜센터, 스페인 빌바오, 말라가 심포니홀, 시애틀 베나로야홀, 볼티모어 마이어호프홀, 워싱턴DC 케네디센터, 독일 캄니츠 주립극장, 독일 북서지방의 콘서트홀들,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브장송 오페라하우스, 아비뇽 오페라하우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란츠리스트홀, 체코 프라하 드보르작 루돌피움, 스메타나홀, 베이징 국립대극장, 상하이 오페라하우스, 도쿄 오페라시티홀, 오사카 심포니홀, 폴란드 바르샤바 심포니 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볼쇼이홀, 태국 방콕 마이돈홀, 몽골 울란바타르 국립극장 등 그 밖의 많은 도시에서 순회연주 또는 그곳의 오케스트라들과 연주하였다.

그의 최근 행보는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우루과이 등 남미의 오페라와 오케스트라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전형적인 열정과 섬세한 지휘가 남미 연주자와 청중들에게 어필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2006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첩두, 항저우, 귀양, 칭다오 등 중국 대도시의 오케스트라로부터 초청을 받아오고 있다.

2020년 시즌 이후 코로나로 인한 클래식 음악계의 불황은 민간 오케스트라의 존폐 문제까지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으나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깨끗한 자세로 단 한 번의 연주도 취소하지 않고 계획된 모든 연주를 성공적으로 소화해 나가고 있다. 2014년 그가 창단한 이 젊고 활기찬 오케스트라의 성장은 함신익이 오케스트라의 후원자들과 만드는 열정과 기적의 산물이다. 전문오케스트라가 쉽게 빠지기 쉬운 반복적 매너리즘을 박차고 뛰어나와 늘 새롭게 깨어나 살아있는 음악을 전달하는 사명을 지키기 위해 함신익은 오늘도 산에 오르며 새로운 것을 찾는다.

함신익 오케스트라 · 심포니 송
2023 마스터즈 시리즈 VII

함신익의 브람스

2023
BRAHMS FESTIVAL 2



JOHANNES BRAHMS

요하네스 브람스 1833~1897

Symphony No. 3 in F Major, Op. 90

교향곡 제3번 바장조, 작품번호 90

- I. Allegro con brio 빠르고 생기있게
- II. Andante 느리게
- III. poco allegretto 조금 빠르게
- IV. Allegro - Un poco sostenuto 빠르게 - 약간 음을 끌면서

INTERMISSION

Symphony No. 1 in c minor, Op. 68

교향곡 제1번 다단조, 작품번호 68

- I. Un poco sostenuto - Allegro - Meno Allegro 약간 음을 끌면서 - 빠르게 - 그다지 빠르지 않게
- II. Andante sostenuto 느리고 음을 충분히 끌며
- III. Un poco allegretto e grazioso 약간 빠르고 우아하게
- IV. Adagio - Più andante - Allegro non troppo, ma con brio - Più allegro
매우 느리게 - 다소 걸듯이 느리게 - 빠르게 진행하되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생기있게 - 더욱 빠르게



MASTERS SERIES



글 박희정(지휘자, 작곡가)
Heejung Park(Conductor, Composer)

Johannes Brahms, Symphony No. 3 in F Major, Op.90

브람스 교향곡 제3번 바장조, 작품번호 90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거장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1883년 여름 온천의 도시 비스바덴(Wiesbaden)에서 그의 세 번째 교향곡을 완성한다. 평생을 사모했던 클라라 슈만(Clara Schumann, 1819~1896)에 대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불우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 그리고 고향 함부르크(Hamburg)의 어둡고 우울한 기후 탓인지 대개 그의 음악은 무겁고 진지하다. 하지만 그의 3번 교향곡은 매우 긍정적이고 밝으며 또한 4개의 교향곡 중 가장 짧고 경쾌하다. 사실 이 시절 그는 피아노 앞을 떠나 비스바덴의 숲을 산책하며 작곡 스케치를 했는데, 그로 인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찬사와 묘사가 이 시기의 다른 곡들, 특히 가곡에서 많이 발견되고 또한 가수 지망생 헤르미네 슈피스(Hermine Spies, 1857~1893)와의 열애설도 이 시기에 있었기에 그의 생애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평가되기도 한다.

1악장 Allegro con brio



[1악장 제1주제 및 동기]

브람스가 늘 부르짖던 그의 음악적 모토 “Frei aber froh (Free but happy)” 즉 “자유롭게 하지만 기쁘게”의 알파벳 머리글자로부터 제1주제 동기 ‘F-A b -F’가 시작된다. 오케스트라 전체가 모티브 코드를 멋지게 두 마디에 걸쳐 우렁차게 외치면 저음 현의 거침없는 당김음 반주 위에 바이올린이 주제를 소개한다. 주제 모티브만큼 중요한 것이 이 당김음 형태인데 1악장 전반에 걸쳐 아주 중요하고 빈번하게 사용된다. 경과부에서 차분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클라리넷의 느리고 평온한 전원의 멜로디가 자장가처럼 아늑하다. 주제 모티브가 잠깐 다시 등장하면서 종결부가 시작되는데 엇박자에 의한 당김음이 사진행(斜進行), 즉 상하 선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과 주를 이룬다. 발전부는 조용하던 제2주제가 열정적으로 바뀌어 계속되는 당김음 패턴과 함께 숨 막힐 듯 내달린다. 재현부로 들어가기에 앞서 등장하는 제1주제의 모습을 띤 경과부가 인상적이다. 제1주제의 반복을 통해 코다에서 절정에 이르고 다시 제 1주제를 조용히 반복하면서 악장을 끝낸다.

2악장 Andante

가곡 형식의 세도막 형식이다. 클라리넷의 질문에 저음 현이 차분히 답하고 다시 어휘를 바꿔가며 안타까워하듯 목소리를 높여 여러 차례 질문하면 또다시 그저 차분히 답을 하는 것이 마치 사랑하는 클라라를 향한 브람스의 고백과도 같다.



[2악장 사랑의 주제]

PROGRAM NOTE

사랑의 대화는 오보에에 의해 변주되는데 클라리넷과 바순이 뒤이어 하는 이야기가 어둡다. 하지만 다시 첫 주제가 아름답게 반복되고 사랑의 대화는 고조되어 현 파트의 출렁이는 반주 위에 목관이 모두 함께 노래한다. 하지만 코다에 이르면 이내 억눌렀던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참았던 눈물이 흐른다. 전형적인 브람스식 울부짖음이 참 가슴 아프다. 중반에 등장했던 어두웠던 패시지가 반복되면 제1주제의 질문이 대답 없이 반복되며 악장이 마무리된다.

3악장 Poco Allegretto



[3악장 주제]

결국 꽃을 피우지 못하는 사랑. 그 가을의 쓸쓸함이 브람스 특유의 고독함으로 첼로 선율에 묻어나온다. 바이올린에 의해 반복되는 주제 선율은 첼로의 하행 대선율로 더 슬퍼 보이고 이어지는 중반부 목관의 당김음 제스처가 안타까운 손짓을 잘 표현한 듯하다. 이는 곧 이은 현 파트의 애절한 소절에 의해 그 감정이 잘 연결된다. 흐른 주제를 아름답게 재현하는데 오히려 담담함마저 느껴지는 듯하다. 중반부에서 그 모습이 다시 잠깐 등장하여 감정이 고조되지만 이윽고 차분해진 뒤 다음 악장으로 이어진다.

4악장 Allegro - Un poco sostenuto



[4악장 제1주제]

지금과는 사뭇 다르게 곡은 느닷없이 단조(minor mode)로 시작되더니 레가토(legato)로 꿈틀대는 형태의 제1주제가 참 어지럽다. 곧 이은 코랄 풍의 음산한 경과부는 천둥 번개같은 강한 음형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급작스레 부점(부쩍) 리듬의 역동적인 패시지가 우리의 심박수를 높여가는 것이 이 악장은 더 이상 비련의 주인공이 흘리는 눈물을 애기 하는 것이 아닌 생명의 역동성과 활기참을 노래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이윽고 불현듯 등장하는 매우 긍정적이며 밝은 제2주제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다. 첼로는 다장조 위에서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재미있는 셋잇단음표와 함께 꿈틀댄다. 발전부 없이 재현부로 들어오면 제1주제는 플루트에 의해 반복되고 코랄 풍의 경과부가 마치 발전부처럼 확장된다. 제2주제가 이번엔 이 곡 전체의 조성인 사장조로 반복되고 코다로 들어가는데 경과부 주제가 아름다운 코랄로 변모되더니 1악장 제1주제를 급히 소환하여 차분히 가라앉히며 조용히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Johannes Brahms, Symphony No. 1 in c minor, Op. 68

브람스, 교향곡 제1번 다단조, 작품번호 68

베토벤을 무척이나 존경하였던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 그는 베토벤이 그의 9개의 교향곡 시리즈를 통해 교향곡의 장르적 완성을 이루었다고 여겼다. 이러한 그의 경외심은 교향곡 작곡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첫 교향곡의 초고를 1854년(21살)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21년간 완성하지 못할 만큼 대단했다. 1876년에 이르러야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제1번 교향곡을 완성하였는데 그는 “등 뒤에서 다가오는 거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곡을 썼다”고 회고할 정도로 베토벤을 의식했다. 그래서인지 전 악장을 통틀어 유머나 장난은 찾아볼 수가 없고 심각한 생의 고뇌와 철학적 고찰로 가득하여 매우 무겁고 어두운 느낌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는 작곡 기법 면에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단순 동기가 발전하여 전체 악장을 이루는 것, 베토벤 5번과 9번 교향곡에서와 같이 1악장 단조에서 시작되어 4악장이 장조로 마치는 것, 1도 화성과 근음의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는 점, 운명 교향곡의 리듬의 노골적 차용, 특히 4악장 첫 주제가 합창 교향곡의 주제와 구성상 매우 닮아있는 점이 그러하다. 하지만 브람스의 소심하고 섬세한 성격으로 인해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베토벤처럼 주제를 직설적으로 곧장 풀어내지 않고 긴 서주부를

통해 주제의 출현을 미루는 점, 끝내 1악장 서주부의 빠르기를 정하지 못한 점, 불우했던 유년 시절 때문인지 베토벤의 음악에 비해 지나치게 어두운 분위기, 감정에 복받쳐 끝내 울음을 터트리다 말고 이내 울분을 삭이는 모습 등이 거인 베토벤에 비해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며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한다. 당대 유행하던 낭만주의 사조, 자유로운 표현과 형식의 굴레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던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 음악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 이 교향곡은 반대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철저한 음악 구조와 형식미를 숭상하고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영감이 아닌 베토벤식의 치밀하게 계산된 작곡 기법, 그리고 물샐틈없는 음악 논리로 구성된 이 교향곡은 지나친 화려함으로 본질의 아름다움을 잊고 사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보물과도 같다.

1악장 Un poco sostenuto - Allegro

긴 서주부는 베토벤 운명 교향곡의 리듬이 팀파니와 베이스에 의해 끝없이 반복되고 바이올린과 첼로의 상행과 비올라와 목관의 하행의 사진행이 절묘함을 이룬다.



[1악장 서주 주제]

이윽고 제시부의 제1, 2주제의 모습이 각각 간략히 소개되면 빠른 속도로 제시부가 시작된다. 이 주제의 선율은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3악장 주제와 닮아 있고 모토릭 리듬은 운명 주제 리듬을 연속하고 있는데 선율은 상행 후 급격한 낙하가 이루어지며 굉장한 긴장감을 연출한다. 첼로와 바이올린의 주제 선율 안에서 제2바이올린과 비올라가 거침없이 8분음표의 운명 주제 리듬(운명 교향곡 1악장 본 주제 리듬)을 반복한다.



[1악장 제 1주제]

제2주제의 평안함은 목가풍의 스위스 알펜호른(Alpenhorn)의 부드러움을 연상시키고 뒤이은 운명 교향곡 주요 주제를 닮은 종결 주제는 호른의 비장한 팡파르로 이어지며 드라마를 거침없이 전개해 나간다.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제시부-발전부-재현부)의 논리를 충실히 따른 후 등장하는 코다(Coda)는 서주부의 변주 형태인데 느린 속도로 장엄하게 악장을 끝맺는다.

2악장 Andante sostenuto



[2악장 주제]

세도막 형식의 서정적인 악장으로 선율은 1악장에 비해 큰 도약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 보인다. 기도하는 듯 호소하는 현의 선율은 브람스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오보에로 이어지는 감성은 현에 의해 다시 고조된 후 중반부로 접어드는데, 강박이 생략된 불안정한 현의 리듬과 목관의 정처 없이 방황하는 어지러운 선율이 그의 복잡한 심경을 묘사하는 듯하다. 화를 내는 듯 절규하다가도 이내 숨죽여 가라앉힌 후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후반부로 들어가는데 첫 부분에 등장했던 오보에의 아련한 선율이 솔로 바이올린, 호른, 오보에의 3중창으로 발전하여 삶의 깊은 애환을 더욱 애절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린다.

3악장 Un poco allegretto e grazioso

간주곡 느낌의 짧은 악장이다.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선율이 클라리넷에 의해 고요히 나오고 이를 첼로 피치카토 (Pizzicato)가 부드럽게 장식한다.



[3악장 주제]

목관의 경쾌한 하행 리듬과 새소리 같은 클라리넷의 음형 후 긴장감이 감도는 경과부와 중반부를 지나면 재현부가 중반부의 셋잇단음표로 장식되어 무난하게 등장한다. 느린 코데타(Codetta)는 중반부의 변주인데 구조적으로 한 마디가 부족하게 끝나 불안정해 보이지만 이로 인해 4악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4악장 Adagio - Più andante - Allegro non troppo, ma con brio - Più allegro

브람스의 4개 교향곡 중 유일하게 본 악장과 1악장만이 서주부를 가지는데 4악장 서주부는 1악장보다 두 배 이상 길다.



[4악장 서주부 제1주제 및 제2주제]

이 긴 서주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시부 제1주제가 길게 변주되어 소개되고 제시부 종결 주제로 연결되는 서주부의 첫 부분이 장대하게 끝나면 서주부의 두 번째 부분이 호른의 그 유명한 선율로 시작된다. 이 선율은 너무도 개성이 뚜렷하고 아름다워 본 악장의 제1주제로 오해받기 쉽지만 음악은 아직 서주부에 머물르고 있다. 트롬본의 코랄이 경과적으로 등장하고 다시 호른의 주제가 긴 호흡을 끝내면 드디어 현악부에 의해 제시부 제1주제가 등장하는데 베토벤 교향곡 9번 4악장 주제와 많이 닮아 있다.



[4악장 제1주제]

찬송가 풍의 이 제1주제는 점차 힘이 더해져 전체 합주로 열정적이게 변모한다. 서주부 호른 주제가 경과적으로 등장한 후 제2주제가 등장하는데 이는 짧은 파사칼리아(Passacaglia) 형태로서 반복되는 베이스 음형 위에서 위 선율이 변주되는 것이다. 베이스의 “도시라솔” 음형은 열 번이나 동일하게 반복된 후 변주, 발전된다. 경과한 종결부를 지나면 발전부 없이 곧바로 재현부로 들어간다. 제2주제로 가기 전 경과부가 마치 발전부처럼 길어져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고 서주부 호른 주제가 제시부 때보다 더 장엄하게 등장한 후 제2주제가 나온다. 코다에서는 1악장 제1주제의 변주가 미스터리한 화성적 진행과 함께 멋지게 등장한다. 템포는 빨라져 코다의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고 제1주제 앞부분 동기를 박진감 넘치는 리듬으로 바꿔 흥을 더한다. 서주부 트롬본의 주제가 장엄한 클라이맥스를 이루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Johannes Brahms Symphony No. 3 in F Major, Op.90

Johannes Brahms (1833~1897) wrote his third Symphony in the summer of 1883 at Wiesbaden Germany, famous for its hot springs, nearly six years after he completed his Symphony No. 2. Due to the love that could not be done with Clara Schumann (1819~1896), which made him weep throughout his entire life, the memory of his unfortunate childhood, and dark & gloomy weather of his hometown Hamburg, his music seems mostly quite heavy and serious. However, this symphony is very positive and bright. Also, it is the shortest of his four symphonies. Indeed, it is known that he often left the piano and went to the forest in Wiesbaden to take a walk and make musical sketches for his next works. Beautiful compliments and descriptions for the nature are found in his other works written in the same period, especially in his songs.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this period is regarded as the happiest days of Brahms' life along with romance rumor with singing student Hermine Spies (1857~1893).

Symphony No. 1 in c minor, Op. 68

Johannes Brahms (1833-1897) respected Beethoven very much. He recognized Beethoven as the one who perfected Symphony as a genre through his ninth symphony. Due to his great respect for Beethoven and this thought, his psychological burden on writing a symphony was great. In fact, it took 21 years to complete his first symphony although he already started its sketch in 1854 when he was 21 years old. He remembered that when he was writing his first symphony he felt like "hearing the giant's steps coming to him behind his back". So that might be why there is no humor nor joke throughout all the movements but full of serious agony and philosophical introspection; the entire symphony is very heavy and dark. His great respect for Beethoven is demonstrated in his composing skill as followings; a simple motif developing to form an entire movement, harmonic progression of 1st movement in minor key to the last movement in major key as in Beethoven No. 5 and 9, excessive emphasis on the tonic chord and the root note, quotation of the thematic rhythm from the Destiny Symphony, especially the first theme of the fourth movement resembling the main theme of the Choral Symphony. Of cours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great; due to Brahms' timid and delicate personality, he does not jump into the main theme directly as Beethoven does, but he goes through a long introduction. Brahms failed to decide on tempo marking in the introduction of the first movement. Also, dark atmosphere is prevailing throughout the work more than Beethoven's due to his deprived childhood. An instant controlling his emotion always follows crying out of breaking with emotion, which makes him look more humane than the giant Beethoven. In that time, Romanticism prevailed with tendencies of free expression and liberation from formality. Richard Wagner (1813-1883)'s music was popular, but Brahms' came under criticism. Revering strict musical structure and the beauty of form, using not intuitive and sensitive inspiration but Beethovenian elaborate and calculated composing method, and detailed logics in music; based on these techniques, this symphony was created. That is a very necessary invaluable treasure to us who tend to forget the beauty of the essence but more recline to cultural excessive "splendors" I mentioned above.

‘문신소년’이 손 번쩍!... 소년원서 일어난 뜻밖의 일 [따만사]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3-07-13 12:00 업데이트 2023-07-21 11:37

트럭에 악기 싣고 방방곡곡 찾아가는 ‘흙수저’ 출신 음악가



찾아가는 트럭 콘서트를 '더윙'

‘아이들이 즐지 않고 버릴 수 있을까?’ 걱정은 오산이었다. ‘함신악과 심포니 송’의 오케스트라 공연은 달랐다. 트럭에 ‘음악’을 싣고 ‘문화 예술’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음악인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따만사가 지난달 28일 이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대전 소년원이었다. 소년원생들이 굳은 표정으로 공연장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공연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다루기 힘든 연령대, 그것도 제도적 통제가 불가피했던 청소년들이 교양 음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휘자의 질문에 아이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지휘자는 관중 속으로 들어갔다. “저 형은 곱창집 아들내미인데 저거 하고 있어” 지휘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사람은 곱창 모양 금관악기를 든 ‘호른’ 연주자였다. 아이들이 실룩 웃었다. 각각의 악기가 어떤소리를 내는지 소리도 들려줬다. 아이들은 ‘놀란 토끼눈’을 떴다. 노래방에서 흔히 봤던 ‘탤버린’도 전문가의 손에서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자 “우와~!”하며 탄성을 내질렀다. 공연이 중반부



소년원과 무관한 자료사진

에 이르자 완전히 달라졌다. 아이들은 어느새 지휘자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지휘자는 지휘봉을 내주기도 했다. 쭈뼛쭈뼛 하던 아이들은 이제 서로 답하겠다고며 앞다뿔 손들었다. 모두 천진난만한 눈빛이었다.

함신익 “저 형은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집시야. 집시가 뭔지 아는 친구?” 원생 “저요! 저요! 집안일 하는 사람요?” “집에만 있는 사람?” 함신익 “넌 제발 손좀 그만 들어”, “넌 팔에 뭘 그린거니?” 원생들 “하하하~”

연주곡은 결혼식장에서 한번쯤 들었을 법한 유명 클래식 음악부터 BTS의 ‘다이너마이트’, 이무진의 ‘신호등’ 등 장르를 가리지 않았다. 공연이 끝나자 아이들은 “제발 한 곡만 더 해달라”며 애원했다. 공연 후 즉석으로 소감을 묻자 한 여학생이 이렇게 답했다. “악기 하나에서 나오는 소리랑 여러 개 같이 합쳐서 나오는 소리를 비교해서 들으니 화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건지 알게 됐어요.” 단원들과 직원 모두를 감동시킨 답변이었다. 사회에서 남들과 조화를 이뤄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모니’의 중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소년원 지도교사는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 원래 대답을 잘 안하는 아이들인데 눈들이 아주 초롱초롱 했다”며 “이곳 아이들은 대부분 결손 가정에서 자랐다. 문화 예술의 혜택을 보지 못한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Pass it on”



심포니 송의 군부대 공연에서 군인들이 무대 앞으로 나와 춤을 추고 있다.



심포니 송이 ‘코로나 시국’ 지친 상인들을 위해 서울 명동입구에서 트럭공연을 하고 있다. 꼬마 관객을 지휘대로 불러내 연주하는 모습.

함신익이 가장 공을 들여온 것은 ‘찾아가는 트럭 콘서트홀-더윙’이다. 양 날개가 펼쳐지는 ‘윙트럭’을 개조해 음향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즉석 무대를 여는 것이다. 운영은 순전히 자비로하고 있다. 함신익이 미국에서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위스콘신 지역의 유명 기업가가 있었다. 80대 기업가 부부가 그의 공연을 보고 감화를 얻어 후원에 나선 것이다. 평생의 은인이었던 노부부는 은혜를 갚으려는 함신익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Pass it on.”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넘겨주라는 의미다.

그래서 만든 게 ‘더 윙’이다. 2014년 노루포페인트 한영재 회장의 도움을 받아 이 트럭을 만들었다. 그는 강원도 산간 벽지, 탄광촌, 군부대, 요양병원, 정신의료원, 하나원, 소록도 등 전국방방곡곡문화 예술 접착이 쉽지 않은 지역을 찾아 다녔다. 전신을 움직이지 못해 누워만 지내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봤다. 함신익은 “한번은 겨울에 공연을 갔는데 아이들이 ‘징글벨’ 노래 초차 모르더라. 그 정도로 문화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아이들이 있다”고 떠올렸다. 단원들은 좁은 트럭 무대에서 최상의 연주를 보여주기 위해 애쓴다. 공연은 주로 관객과 거리가 없는 스탠딩 공연으로 이루어진다. 마치 ‘록 공연’인 듯 관객들은 트럭 바로 앞에 서서 춤을 추기도 한다. 10여년간 사용했던 더윙은 수명을 다해 현재 최첨단 ‘리뉴얼’ 더윙을 제작중이다. 오는 7월 말 또는 8월 초에 완성 된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트럭 오케스트라 공연’이지만, 함신익은 Pass it on의 뜻에 따라 특허를 내지 않았다. 좋은 일이라면 누구나 벤치마킹 하라는 의미다.

동아일보

“사비들여 봉사공연...기업 관심 절실히 필요”



크게보기기존의 '더윙' 트럭이 노후해 새 공연 트럭을 현재 제작 중이다. 새 트럭은 오는 8월경부터 전국방방곡곡을 누빌 예정이다.

PRESS RELEASE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오랜 ‘팬’이자 지원자인 안정근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고아원, 탁아소, 소년원 등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대상이 사회에 많다. 문화예술적으로 낙후된 곳도 많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 음악인들은 본인의 음악적 재능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느낄 기회가 많지 않다”며 “함신익과 심포니 송은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유일무이한 오케스트라”라고 찬사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포니 송은 2014년 창단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마운 손길들이 있었기에 유지가 가능했다. 연습실과 사무실은 10여 년간 EG그룹 박지만 회장이 조건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줬다. 트럭은 노루표 그룹에서 지원해줬다. 소년원 공연은 삼성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봉사 공연은 한번 갈 때마다 적잖은 돈이 들어간다. 일부 공연에는 후원이 있어서 단원들에게는 연주료가 지급되지만 함신익은 보수를 받지 않는다.

안정근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사실 후원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지방자체단체 산하 공연단은 지방정부에서 예산이 나오지만, 여긴 처음부터 끝까지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다 보니 정말 어렵다.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도와주시는 분들께는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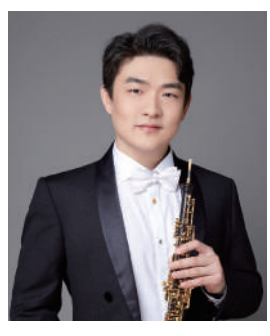
기사 원문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707/120114389/2>

오보이스트 최경주 인터뷰

Xiaozheng, Cui, Oboe
샤오징 추이(최경주), 오보에

스위스 바젤 음대
중국 심천 오케스트라 수석



Q 현재 재직하고 계신 직장은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이곳에서 일하셨나요?
2013년부터 10년동안 중국 심천 오케스트라에서 수석 오보이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가족들과 언제 중국에서 정착하게 되었나요? 몇 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지요?
저는 중국 지린 성에서 태어났고, 4살때 가족 모두 베이징으로 이동하여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때부터 3대째 중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귀여운 딸은 4대째가 되겠네요.

Q 이번에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9주년 연주회에 수석으로 초빙 받게 된 계기는?
매우 간단한 이유예요. 제 인생의 가장 훌륭한 지휘자인 함신익 선생님과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음악을 사랑합니다. 매 순간 완전한 에너지를 주는 그의 리허설은 음악가들에게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함께 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줍니다. 매우 흥미롭고 모험적이예요.

Q 함신익 지휘자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인가요?
2014년, 중국 심천 오케스트라의 객원 지휘를 오신 함신익 지휘자님과 브람스 교향곡 4번을 연주했습니다. 그만의 유머러스하고 긍정적인 에너지, 열정적으로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이끌어나가는 리허설 과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함선생님의 음악적 깊이를 느끼게 한 에피소드를 꼭 공유하고 싶네요: 브람스 교향곡 4번의 2악장 발전부에서 현악기가 연주하는 띠띠(Tutti) 부분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 연습 할 때, 함선생님께서 잠깐 멈추고 말했습니다. “저의 장례식에서, 음악을 향한 제 열정과 모든 인생을 기리며 이 아름답고 로맨틱한 음악을 사용하고 싶어요.” 이 말이 있던 후, 저희의 연주는 놀라울 정도로 깊어지고, 감동적이며, 가장 낭만적인 음악으로 변했습니다. 현악기 연주자들은 한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형언할 수 없는 따듯하고 깊은 소리를 연주했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함신익은 마법사야!” 연주 후, 함선생님과 단원들은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그의 축구 실력은 축구선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나요. 마치 축구선수 같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포용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친구같이 매력적이고 친숙한 함선생님은 제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멋진 어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Q 서울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은?
리허설 일정이 긴장 됩니다. 큰 프로그램이라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있으면 명동에 가서 한국 TV 프로그램 “런닝맨”에서 알게 된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

Q 중국으로 돌아갈 때 자녀를 위해 준비할 선물은?
콘서트는 9월 9일이고 제 딸 생일은 10일입니다. 일단 9월 10일 비행기가 연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은 겨울왕국의 엘사 공주에 푹 빠져있어요. ^^ 이미 디즈니 샵에서 제 딸이 원하는 것을 많이 사줬지만,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엘사 공주를 찾아보고싶어요. ^^

심포니 송 특별 초청 연주자 소개

Jin Ta, Flute
진 타, 플루트



베이징 중앙음악원
미시간 대학교
뉴잉글랜드 음악원
싱가포르 심포니 수석

Ma Yue, Clarinet
마 유예, 클라리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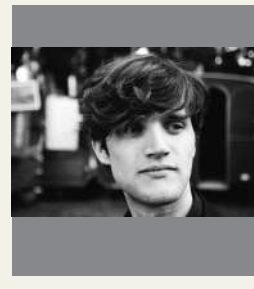
베이징 중앙음악원
취리히 국립음대
베이징 중앙음악원 교수 역임
싱가포르 심포니 수석

Liu Chang, Bassoon
리우 창, 바순



베이징 중앙음악원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싱가포르 심포니 부수석

Edward Stephen, Horn
에드워드 스테펜, 호른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
홍콩 심포니에타 단원

Sheng-Wen Lee, Timpani
셴웬 리, 팀파니



타이완 국립대학교
핀란드 헬싱키 음대
타이완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귀양 심포니 오케스트라,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 객원 수석

PERFORMER INTRODUCTION



심포니 송의 프로들

SYMPHONY S.O.N.'S PROFESSIONALS

예 술 감 독	함신익
바 이 올 린	송지원 오하은 권소영 박진형 강승희 김동아 김 민 김시연 김주희 김희영 도예성 박지민 백서빈 옥영미 이다정 이예원 이지현 이찬주 전지은 최수영 최주은 홍예슬
비 올 라	한연숙 임선영 장서윤 신일경 안예림 윤소은 조혜민 황유선
첼 로	이승희 Yu Jing 민세연 이지혜 이한호 이해인 김정현 정혜슬 홍지희
더블베이스	고부현 김태완 김현미 박재선 백종훈 윤영진 윤철원 이건희
플 루 트	Jin ta 김지원
오 보 에	Xiaozheng Cui 이해빈
클 라 리 넷	Ma yue 곽지현
바 순	Liu Chang 고수경
콘트라바순	어지은
호 른	Edward Stephen 안지환 이석재 최정은
트 럼 팻	이진규 이해진
트 롬 본	김성수 황인환
베이스 트롬본	김흥진
팀 파 니	Shen-Wen Lee
크리에이티브 팀	고희진 이성준 정다윤 정연희 한지민

*명단은 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연말
시즌
맞춤
공연
| 서울문화재단 · PORSCHE와 함께하는
함신의 오케스트라 · 심포니 송 2023 마스터즈 시리즈 Ⅷ



위대한 차이코프스키와 슈베르트

THE GREAT TCHAIKOVSKY & SCHUBERT



지휘 대럴 앙

Darrell Ang
Conductor

바이올린 송지원

Ji-Won Song
Violin

UPCOMING CONCERT

Tchaikovsky Violin Concerto in D Major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Schubert Symphony No. 9 in C Major, D. 944 'The Great' 슈베르트: 교향곡 제9번 '더 그레이트'
--	--

2023. 10. 17. Tue. 7:30pm 롯데콘서트홀 | LOTTE CONCERT HALL

티켓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 C석 2만원 문의 심포니 송 02 549 0046 | 02 549 0947 예매 롯데콘서트홀 YES24.COM공연
 후원 NOROO 하나은행 SAMSUNG EG 주식회사 이지 SEBOM FST TSE DSK GOLFZON 콘서트스퀘어 화광교역(주) 서울문화재단 PORSCHE

본 프로그램은 서울문화재단 및 포르쉐코리아의 「포르쉐 두 드림 '사이채움' 시즌3」 후원을 받았습니다.





함신의 오케스트라 · 심포니 S.O.N.G 하반기 MASTERS SERIES 일정



함신의 오케스트라 · 심포니 송 2023 마스터즈 시리즈 IX

이정현의 첼로 퍼레이드 ‘드보르자크와 굴다’

DVOŘÁK & GULDA BY CELLIST CHRISTINE J. LEE

Dvořák: Slavonic Dances Nos. 1-8
드보르자크: 슬라브 무곡 제1-8번

Dvořák: ‘Silent Wood’ for Cello and Orchestra
드보르자크: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고요한 숲’

Dvořák: Rondo for Cello and Orchestra
드보르자크: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론도

Gulda: Concerto for Cello and Wind Orchestra
굴다: 첼로와 관악합주를 위한 협주곡

2023. 11. 18. Sat. 8:00pm
롯데콘서트홀

지휘 함신의 Shinik Hahm, Conductor
첼로 이정현 Christine J. Lee, Cello



SHINIK HAHM & SYMPHONY S.O.N.G 2023 MASTERS SERIES

9

UPCOMING CONCERT

함신의 오케스트라 · 심포니 송 2023 마스터즈 시리즈 X

2023 송년음악회 ‘합창’

BEETHOVEN'S 'CHORAL' SYMPHONY

Beethoven: Symphony No. 9 in d minor 'Choral'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합창 국립합창단
소프라노 오미선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윤정수 베이스 정인호

2023. 12. 14. Thu. 7:30pm
롯데콘서트홀

지휘 함신의 Shinik Hahm, Conductor



SHINIK HAHM & SYMPHONY S.O.N.G 2023 MASTERS SERIES

10



심포니 S.O.N.G 법인 / 개인후원 안내

구 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예우
마에스트로	3억원 이상	기업연주* 6회 제공 2023시즌패스 - R석 40매, S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마스터즈	1억원 이상	기업연주* 2회 제공 2023시즌패스 - R석 25매, S석 25매 증정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함신의 기업방문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광고
말 러	5000만원 이상	기업연주* 1회 제공 2023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브 램 스	3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2회 제공 2023년 시즌패스 - R석 1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브 루 크 너	2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3년 시즌패스 - R석 10매 증정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슈 베 르 트	1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3년 시즌패스 - R석 10매 증정	
베 토 벤	500만원 이상	2023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추가구매티켓 20%할인	
쇼 팅	300만원 이상	2023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추가구매티켓 20%할인	
모 차 르 트	100만원 이상	2023년 시즌패스 4회 - S석 2매 증정 추가구매티켓 20%할인	
하 이 든	1만원 이상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Melodia' 법인 후원약정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Mobile	
	E-mail	
약 정 금 액	※ 월기부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원 <input type="checkbox"/> 500만원 <input type="checkbox"/>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30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일 시 납	일시납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 동 이 체 은 행 정 보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란을 채워주십시오

개인

또는

법인

약정금액

성 명

연 락 처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 신청방법 :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 02-549-0046 이메일 : management@symphonysong.com
-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시냇 물이 흘러 큰 바다를 이루듯
여러분의 작은 적성이 저희에게는 큰 후원이 됩니다.
‘Melodia’ 개인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Mobile	
	E-mail	
약 정 금 액	※ 월기부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원	
	<input type="checkbox"/> 500만원	<input type="checkbox"/>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30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일 시 납	일시납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 동 이 체 은 행 정 보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함신익과 심포니 송 정기후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 신청방법 :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 02-549-0046 이메일 : management@symphonysong.com
-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커피 습관 : 언더프레셔

언더프레셔의 다양한 홈카페 컬렉션 제품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MARKET Kurly **coupang** **NAVER** 에서 언더프레셔를 검색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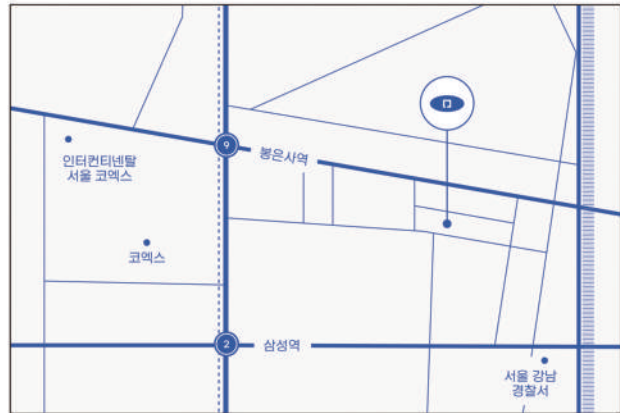
OFFLINE SHOP



<언더프레셔 삼성점>

맛있는 커피와 함께하는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www.underpressure.co.kr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37, 1층(삼성동)

☎ 82 (0)2 2019 8990

Beyond to the world
FA&BIO
 Global **No.1** Company
DSK Group



FA부문 - FPD&SOLAR&의료장비, Linear System, Laser System, Probe
 BIO부문 - 보툴리눔독소제제 PROTOXIN, 필러, 바이오베터



보툴리눔독소제제
 PROTOXIN, 필러,
 바이오베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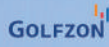
Diode Pumping Solid
 State Laser End Pumped
 Laser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딘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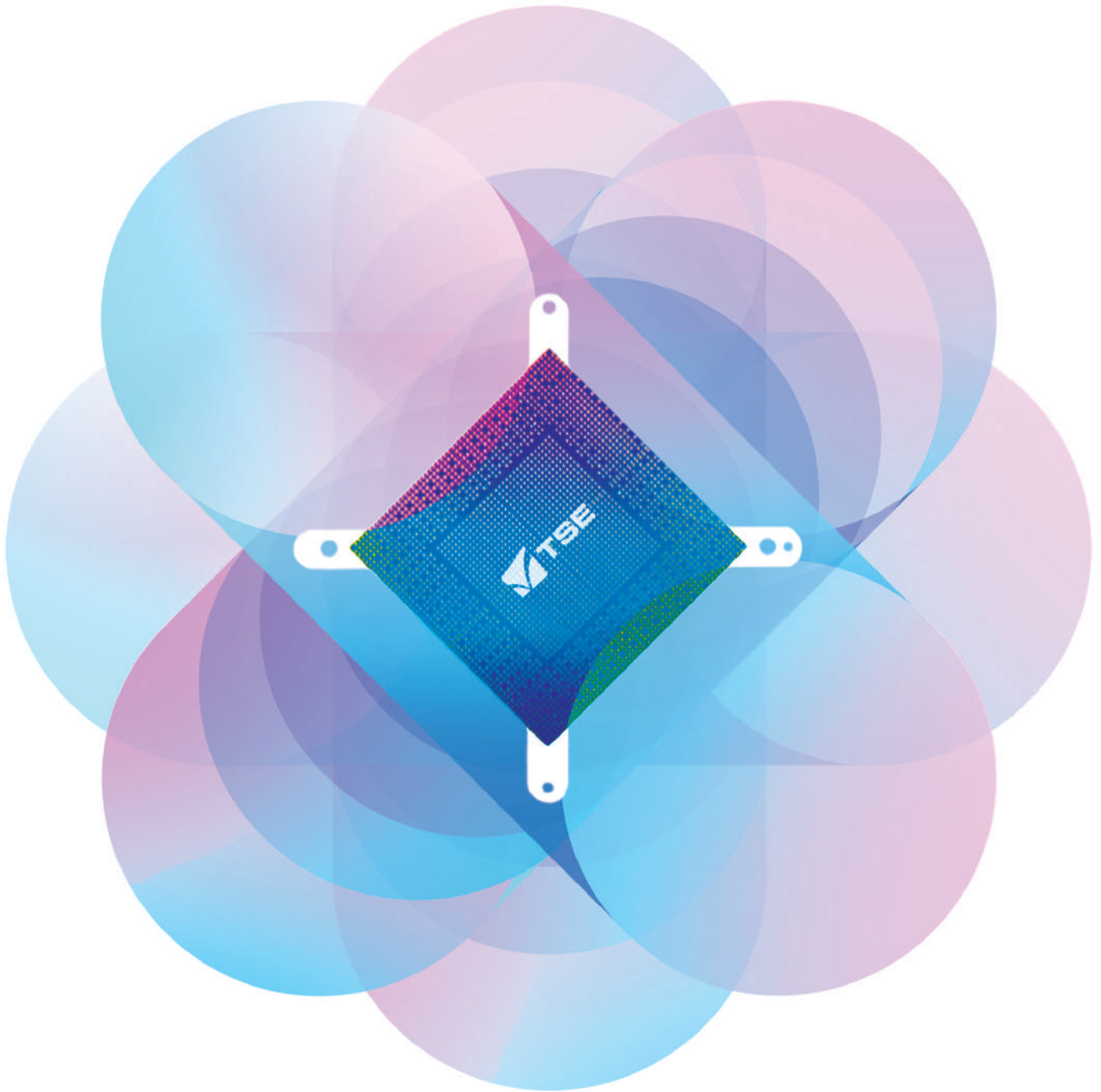
이웃·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GOLFZON NEWDIN GROUP



TUNE THE 5G WORLD

TSE는 초고속 반도체에 대한
TOTAL TEST SOLUTION을 제공합니다.



TSE IS A GLOBAL LEADER IN HIGH-SPEED AND HIGH-PERFORMANCE SEMICONDUCTOR TEST EQUIPMENT.
TSE IS A PREMIER SUPPLIER OF BOASTING A BROAD RANGE OF PROBE CARD FOR WAFER SORT AND TEST INTERFACE AND SOCKET SOLUTIONS FOR PACKAGE TEST, WHICH IS THE MOST DEMANDING TEST SCENARIOS.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 1길 189
www.tse21.com
TSE Co., Ltd.

기술이 힘이다!

세계 최고의 전자소재기업, EG

전자기기 부품, 연료전지, 전기차, 수소차까지 대한민국 친환경 소재 산업을 위한
EG의 새로운 기술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최초와 최고의 기록으로 생활 속 친환경 소재산업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EG, 작은 소재 하나가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전자소재 기업이 되겠습니다.



leuto™

레우토

영 유아를 위한 수제작 토퍼 매트리스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탄탄한 토퍼를 제작해 드립니다.
(맞춤제작 가능)

영 유아용 KC 인증 및 모든 안전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